

연구원 개원 37주년 기념사

오늘은 우리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기 전 홍릉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개원 기념 행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이곳에 문을 연 이후, 그동안 우리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의 삶이 녹아있는 일터인 이곳에서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주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다질 때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78년 4월 개원 이후 37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정의 썩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 주식인 쌀의 자급을 달성하고 나자 농축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개선, 농지제도 개편,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개원 직후 10개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 우리 연구원은 새마을운동 이후 새로운 농촌지역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농촌정주생활권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정의 관심영역을 농촌생활환경과 사회복지개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우리 농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UR 농업협상 지원, 파급영향 추정, 피해대책 수립 등 협상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농업의 다자협상 체제 귀속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자협상 체제에서 새롭게 정립된 국제적인 규범을 이해하고 우리 농정에 접목시켜 한국 농정의 국제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우리 연구원은 UR 이후 농정대책 수립에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94년에는 6개월 동안 연구원에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연구원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농발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반영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장기 농정대책을 수립하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연구원은 DDA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다수의 연구원 박사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아세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FTA 과급영향 분석을 비롯하여, 협상전략과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매진하였습니다. 일례로 우리 연구원이 추정된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투융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부 대책수립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연구원의 전문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2012년에 FTA 이행에 따른 수입피해 보전과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에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농정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복지, 농식품수출, 가축방역, 식품안전, ICT 융복합 등 농정의 기본 틀을 짜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원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였던 쌀 관세화와 한·중 FTA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9년과 2014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기관, 2004년과 2013년에는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이러한 성취와 사명을 나주에서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 세종, 대전 이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를 더욱 확대하여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나주에 가서도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려면,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 기대와 정책적 요구에 대응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업무 위주로 집중하고 성과를 내려면 일반 수탁과제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창의성은 여유로운 생활에서 발휘될 수 있고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연구의 질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평가시스템을 정책과제와 기본과제를 중시하고 양이 아닌 품질 위주로 등급이 결정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에 사용될 점수의 상한선을 두고, 양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승진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성과금이나 정부의 임금인상에 기대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 감축, 업무 창의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가정 및 사회에 대한 기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대외적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모든 직원이 나주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더 나은 나주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